

전주한지산업, 한지수의 판로 넓힌다

시, 전북대병원·예수병원과 활성화 협약 체결

장례·의료업무에 전주 전통한지 상품 적극 사용

전북대학교병원과 예수병원이 향후 장례 및 의료 업무에 전주에서 생산된 전통한지 제품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한지산업의 판로가 넓어지게 됐다.

특히 두 의료기관은 향후 장례식장을 통해 일제장제로 알려진 삼베수의 보다는 한지수의 사용을 독려하기로 하는 등 전통한지의 쓰임새를 기존 공예품 중심에서 장례품 등 한지산업으로 확장시키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전주시는 19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조남천 전북대학교병원장, 김철승 예수병원장, 최영재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주한지수의 및 전통한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날 협약에 따라 협약참여기관들이 한지제품 구매와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다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대학교병원과 예수병원은 장례식장에서 전주한지장이 만드는 한지수의를 도입·사용하는 것은 물론, 병원업무에도 한지제품을 사용해 나가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생산자단체인 전주한지사업협동조

합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더욱 경쟁력 있고 우수한 한지수의 및 한지제품을 개발해 양질의 한지제품 제공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앞서,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은 신협중앙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최근 활옷형·당의형·단령형 등 한지수의 신상품을 개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주한지수는 전주한지장이 전통방식으로 따서 줌치기법으로 형태를 만들며, 수의 1벌당 전지사이즈(145X75cm) 55장이 소요돼 한지수의가 활성화된다면 전주한지 판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특히 한지를 사용하면 활옷·당의·단령 등 다양한 형태로 수의를 제작할 수 있고, 삼베수의와 달리 화려한 색상과 전통문양을 표현할 수 있어 수려한 심미성이 돋보이고 매장 시 생분해도가 현저히 높아 친환경 장례문화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협약 체결로 인해 전북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에서 우수한 한지수의와 한지의료제품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왜곡된 전통 장례문화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전주한지산업 발전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



19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조남천 전북대학교병원장, 김철승 예수병원장, 최영재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은 전주시장실에서 전통한지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보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신협중앙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과 함께 전라북도 의료기관과 타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해 친환경적이고 민족의 얼이 담긴 전주한지수의의 우수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북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인 전북대학교병원과 예수

병원에서 전통문화 계승에 공감해주시고, 전주한지산업발전을 위해 동참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협약이 우리민족 고유 장례문화를 되살려 정착시키는 출발점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한지산업인들에게는 자부심을 지켜줄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삼베수의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의례준칙(1934년)'에 담겨 공포하면서 전통문화인 것처럼 정착시키고 확산시킨 일제장제로, 조선시대에는 유교사상에 의해 상장례(喪葬禮)를 중시해 비단 등으로 가장 화려하고 좋은 옷으로 수의를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효철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위한 공간 정보 구축

전주시, DB 구축 추진

국내에서 치사율이 100%로 알려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던 가운데, 전주시가 가축방역 관련시설 공간 정보를 구축해 방역에 활용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간정보부서와 방역부서가 손을 맞잡고 가축

방역 관련시설에 대한 DB를 구축, 향후 방역업무 추진 시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대상시설은 △농장위치 및 시설 △방역초소 △농장주변 방역 방벽자료 등으로, 시는 방역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 뒤 20일 내로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에 돼지열병 관련 방역 기반시설 DB가

구축되면 전주시 가축방역 계획 수립 등 방역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돼 방역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회곤 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빠른 시일 내로 데이터를 구축해 방역부서·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제공할 예정"이라며 "추후 각종 긴급사항시 공간정보자료를 신속하게 지원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보건소,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가까운 보건소에서 가능

전주시가 겨울철 노년층 사망률이 높은 폐렴증과 뇌수막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에 따르면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우 치명적인 질병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만으로 폐렴증과 뇌수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효과적(50~80%)으로 예방할 수 있다.

올해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매년 접종하는 독감접종과 달리 다당질 백신 1회만 접종하면 된다.

과거 의료기관에서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최소 8주 경과 후 23가 다당질 백신(PPSV23)을 접종하는 것을 권장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무료 접종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폐렴구균 예방접종 관련 기타 자세한 상담은 전주시보건소(063-281-6251~3) 또는 전주시콜센터(063-222-1000)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안전한 공원만들기 합동순찰

전북경찰이 안전한 공원만들기 행복동행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군산 시민경찰연합회와 각 협력단체 등 회원 60여명과 은파호수공원을 순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합동순찰에는 조용신 전북경찰청장도 참여했다. 은파호수공원은 군산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산책, 운동 등 다중인원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차차량에 대한 절도와 성범죄 등 여성 대상 범죄가 우려됨에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야간 산책 및 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순찰을 통해 살폈다. /강석훈 기자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홍보활동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가 19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가량 순천완주간고속도로 오수휴게소 순천방향에서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홍보활동은 지역별 가을축제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특히 대형 전세버스 운전자와 승객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실시됐으며, 이를 위해 안행순찰차와 안행요원을 홍보활동에 투입, 고속도로 상의 음주가무행위 등 중대사고 요인행위는 즉각 단속될 수 있음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행락지 등에서 마신 소량의 술도 운전으로 이어질 경우 강화된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과 안전띠 미착용 차량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음을 알렸다. /강석훈 기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

전북해바라기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전북해바라기센터(아동)(센터장 전북대학교병원장 조남천)가 개소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8일 전북대병원 본관 지하층 모악홀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돌'을 주제로 개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성폭력 근절을 위해 애써온 유관기관 종사자 및 전북대병원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상담동향분석(2009~2018), 주제발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조남천 센터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10년 동안 본 센터가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전담치료기관으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정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지역에 제한없이, 성폭력피해자전담치료기관인 전북해바라기센터(아동)의 서비스 지원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당부했다.

감사패 수여식에서는 기관으로는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개인으로는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이인선 경위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임현주 변호사에게 각각 수여했다.

전북해바라기센터(아동)에서 발표한 상담동향분석(2009~2018)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확인된 가해자의 총 건수는 1,121명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아는 사람에게



의한 피해가 75%를 차지하였다. 가해자의 나이는 19세 이상의 성인 가해자가 31.6%로 가장 높았으나, 19세 미만의 가해자 비율이 28.7%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정부정책 및 지역사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포지엄 주제발표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사회적 지원 방안(장영운 경기남부해바라기 거점센터)', '아동청소년 성폭력 치유과정에서의 2차 피해 사례 (최혜정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청소년과 디지털 성폭력(박성혜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팀장)' 등이 주제로 발표되어 심포지엄에 참석한 유관기관 종사자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성폭력 예방과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다양한 외상 증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지원 및 치료적 개입 등이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학교 현장에서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및 디지털을 통한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윤수 기자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인식 전환특강'

전주시와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취업인식전환교육 전문 특강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고 나섰다.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19일 센터 4층 민들레홀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130명을 대상으로 '성공을 부르는 이미지메이킹'을 주제로 한 취업인식 전환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

업 활동을 촉진시키고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승운 미래클린이데우 대표가 강사로 초청됐다. 이 대표는 이날 특강에서 스나의 역량을 잘 표현하는 노출기법 △호감 가는 인상을 남기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을 소개, 길어진 경력단절 기간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진 여성들의 경제활동 의지를 높이는 등 재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송효철 기자

'장수 사과 가격 폭락'

농가들 대책마련 촉구

장수군, "대책 모색할 것"

장수군을 대표하는 특산품인 사과의 가격이 폭락해 농가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장수사과 농업인 생존권 보장 대책위원회'가 "사과 가격 폭락으로 인해 80여 농가가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며 "장수군이 책임감을 띠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낙할 경매가로 인해 돈을 주고 팔아야 되는 실정에까지 이르렀다며 울분을 토했다.

장수농협 공신출하회 최원서 회장은 "최근 연 5년간 가격하락으로 인해공관장 경매가가 포장당위로 10kg에 500원까지 떨어졌다"며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장수사과 농업인 생존권 보장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인근에 다른 군만 보더라도 직접 나서서 농가를 돕고 있다"며 "판로 모색과 생산 원가라도 보장해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무주군의 경우, 사과를 특화작목 품목으로 선정해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 매치 사업을 통해 서울 가락동에 위치한 모 상회와 계약재배로 판매를 유도했으며, 군에서 앞선해 판매를 돕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비해 장수군에서는 비슷한 조례는 있지만, 유명무실해 어떠한 도움조차 받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현 상황에 대해 장수군 관계자는 간담회와 협의회를 통해 대책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장수 사과가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만큼,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석훈 기자

서울 '우리여행 페스티벌' 서

전주시, 관광홍보관 운영

전주시가 서울 한복판에서 전주 관광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시는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서울 광장에서 열린 '2019 우리여행 Go Go 페스티벌'에 참가해 전주시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고, 시 관광홍보관과 함께 서울광장~명동~인사동 일대에서 서울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2019 우리여행 Go Go 페스티벌'은 개최된 국내여행시장을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주최한 여행박람회로, 전국 27개 지자체와 16개 국내여행사 등이 참가해 총 140여 개의 홍보 및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시는 이번 페스티벌에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슬로건으로 전주 관광 홍보관을 운영, 대한민국 도시 관광 문화를 선도하는 전주다운 관광 홍보와 안내, 홍보 이벤트를 전개해 페스티벌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시는 다음 달 열리는 '2019 제주비빔밥축제'를 집중 홍보하기 위해 축제 홍보물을 배부하고, 플랫폼 돌리기 이벤트를 진행해 페스티벌 방문객들이 울거울에 전주를 방문해 '맛있는 전주여행'을 즐기도록 유도하는 등 제주비빔밥축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송효철 기자

지인 집 숨어 금품 훔치다 덜미

지인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 보관중인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8시경 전주 완산구 모 자택에 침입해 250만 원 상당의 금품들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지인 B모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